

2020. 5.30. 경찰 1차 채용시험 한국사

자료제공 : 정시용 교수 www.kimcodi.kr

1 한국의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기구석기시대에는 몸돌에서 떼어 낸 돌조각인 격지를 잔솔질하여 석기를 만들었다.
- ② 신석기시대에는 제주 고산리나 양양 오산리 등에서 목책, 환호 등의 시설이 만들어졌다.
- ③ 신석기시대에는 백두산이나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흑요석이 사용되었다.
- ④ 청동기시대에는 어로 활동이나 조개 채집의 비중이 줄어들어 폐총이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해설 ▶ ②-제주 고산리와 양양 오산리는 신석기 시기의 유적이지만, 목책과 환호는 방어를 위한 시설이므로 청동기 시기의 유적이다.

2 다음은 삼국의 항쟁에 대한 기록이다. 밑줄 친 국가에서 이 전쟁 이후에 벌어진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락 6년에 왕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잔을 토벌했다. 우리 군사가 [중략] 어느덧 백잔의 도성에 근접했다. 백잔이 항복하지 않고 군사를 동원하여 덤비자 왕은 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백잔성으로 진격시켰다. [중략] 백잔의 군주는 남녀 1천 명과 세포(細布) 1천 필을 바치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하였다.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히 노객이 되겠습니다.”

- 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하게 하였다.
- ②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전래되었다.
- ③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여 신라의 눌지왕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 ④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해설 ▶ 사료의 영락 6년은 광개토태왕 재위 6년으로, 396년에 해당한다. 호태왕 때는 백제 수도 한성을 공격하고 아신왕에게 항복을 받아내었다.

③-신라의 눌지 마립간과 동맹한 것은 장수왕의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427년에 평양 천도가 직접적 계기가 되어 433년에 1차동맹인 공수동맹이 체결되었다.

①-백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고구려 고국원왕이 사망한 것은 371년이다. ②-백제의 불교 수용은 침류왕 때인 384년이다. ④-박사 고흥이 역사책 「서기」를 편찬한 것은 근초고왕 때이다. 4세기 근초고왕~아신왕까지 백제 왕의 계보는 13대 근초고왕[346~375] - 14대 근구수왕[375~384] - 15대 침류왕[384~385] - 16대 진사왕[385~392] - 17대 아신왕[392~405] 순서이다.

3 다음 밑줄 친 신라 왕의 재위 기간 중 축조된 비석은?

9월 대가야가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이사부에게 명하여 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는데, 사다함이 그 부장이 되었다. [중략] 이사부가 병력을 이끌고 그곳에 이르니 모두 항복하였다. 전공을 논하는데 사다함이 최고였으므로 왕이 상으로 좋은 토지와 포로 200명을 주었다.

- 「삼국사기」-

- ① 올진 봉평비
- ② 단양 적성비
- ③ 포항 중성리비
- ④ 영일 냉수리비

해설 → ② 단양적성비-진흥왕, ① 올진봉평비-법흥왕, ③ 포항중성리비-지증왕, ④ 영일 냉수리비-지증왕

4 다음은 어느 역사서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인물의 왕위 재위 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의 나라가 대국을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는 강성하고 교활하여 침략을 일삼아 왔습니다. [중략] 만약 폐하께서 군사를 보내 그 흉악한 무리들을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입니다. 육로와 수로를 거쳐 섬기러 오는 일도 다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종이 크게 동감하고 군사를 보낼 것을 허락하였다.

- ① 갈문왕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상대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 ② 비담과 염종 등 귀족 세력의 반란이 일어났다.
- ③ 독자적인 연호를 폐지하고 당 고종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이 축조되었다.

해설 → ①-태종 무열왕은 중대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왕위 계승이 시작되었으며, 직계 친족 및 측근세력[김유신] 지배체제의 강화를 통해 왕권 정통성을 확립하였다. 또한 신라+당 연합군을 결성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655], 집사부 중시를 강화함으로써 상대등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갈문왕 제도를 폐지하고, 659년에는 사정부를 설치하였다. ②-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기 전 선덕여왕 재위 때이다[647년]. ③-진덕여왕 때 당나라 고종의 연호인 '영휘'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황룡사 9층목탑이 건축된 것은 선덕여왕 때이다.

5 고대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구려에는 초기에 돌무지무덤(積石塚)이 유행했는데, 이른 시기의 것들은 단순한 돌무지였지만 점차 기단을 만들고 피라미드 형태로 정교하게 돌을 쌓아 올렸다.
- ②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초기에는 생활상을 표현한 그림이 많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추상화되었다.
- ③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塼築墳)이다.
- ④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은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 황남대총, 호우총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해설 ▶ ④-돌무지 덧널무덤은 지하에 구덩이를 파거나 지상에 덧널을 짜 놓고 그 위에 돌무지와 봉토를 덮어 봉분을 만든 무덤양식으로, 적석목곽분·목곽적석총·적석봉토분이라고도 한다.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고구려의 돌무지무덤 형태 위에 백제의 한강유역에서 조영되던 원형봉토분이 남하함으로써 돌무지 위에 봉토를 입히게 되어 지금과 같은 고총고분(高塚古墳)이 경주지역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에는 무덤의 구조 자체만 보면 알타이지방의 파지리크에서 발굴된 돌무지덧널무덤과 유사하여 신라의 지배집단은 북방으로부터 이주해온 주민이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단, 신라의 돌무지봉토분이 고구려식 돌무지무덤과 구별되는 것은 봉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성된 형태로 보면 고구려나 백제와는 다르지만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고구려나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5번 문제는 1차적으로는 더욱 정밀하게 확인하여 출제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6 한국 고대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삼국시대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사실상 존재했으며 일반 백성은 이를 경작하거나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기도 했다.
- ② 통일신라에는 녹비법, 퇴비법 등의 시비법이 발달하고 윤작법이 보급되어 생산력이 증가하였다.
- ③ 삼국시대에는 점차 국가 체제가 정비되면서 관청을 두고 여기에 수공업자를 배정하여 무기나 비단 등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였다.
- ④ 삼국 통일 후 인구 증가와 상품 생산의 확대에 따라 경주에 서시와 남시가 설치되었다.

해설 ▶ ②-시비법 중 녹비법, 퇴비법은 고려 시기에 시행되었으며, 발농사에서 2년3작의 윤작법은 고려 후기부터 보급되었다.

7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후백제의 견훤이 경주를 침공해 경애왕을 죽였다.
- ㉡ 후백제의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켰다.
- ㉢ 왕건이 국호를 고려라 정하고 송악으로 천도하였다.
- ㉣ 고려가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에게 패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 ㉢-918~919, ㉠-927년 9월, ㉡-927년 11월[경순왕 즉위해], ㉣-935년

8 고려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목종 때 개정전시과가 실시되어 인품이 배제되고 관품만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 ② 성종 때 시정전시과가 실시되어 관품과 인품을 고려하여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 ③ 태조 때 역분전이 설치되어 개국 공신들에게 충성도, 공훈, 인품 등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13 다음 글을 지은 인물이 속했던 조선 시대 정치 세력[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 버디 몇치나 허 니 水石(수석)과 松竹(송죽)이라.
東山(동산)의 돌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솥 밧긔 또 더허 야 머엇허 리.

- ① 예송에서 왕의 예는 일반 사대부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 ②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인 자의대비가 대공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자신들의 학문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식을 높이고 이언적과 이황을 폄하하였다.
- ④ 경종이 즉위하자 그가 병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복동생 연잉군을 세제로 책봉할 것을 요구하였다.

해설 ▶ 자료에 제시된 문학 작품은 고산 윤선도[1587/선조~1671/현종]의 '오우가[五友歌]'이다. 오우가는 1642년(인조 20) 윤선도가 지은 시조이다. 이 작품은 서사(序詞)인 첫 수에서 수(水)·석(石)·송(松)·죽(竹)·월(月)의 다섯 벗을 말하고, 각각의 벗에 대하여 다시 한수씩 노래하였다. 윤선도는 남인으로, 서인(西人) 송시열에게 정치적으로 패해 유배생활을 했다. ①-왕사부동례[=왕례의 특수성 주장]-남인 입장, ②-갑인예송[1674] 때 대공복[9개월복]-서인, ③-북인, ④-노론이다.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서를 발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는 원래 땅이 협소하여 인재 등용의 문도 넓지 못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인재 임용이 당에 들어 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고, 조정의 대신들이 서로 공격하여 공론이 막히고 서로를 반역자라 지목하니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새로 일으켜야 할 시기를 맞아 과거의 허물을 고치고 새로운 정치를 펴려 하니, 유배된 사람은 경중을 헤아려 다시 등용하되 탕평의 정신으로 하라. 지금 나의 이 말은 위로는 종사를 위하고 아래로 조정을 진정하려는 것이니, 이를 어기면 종신토록 가두어 내가 그들과는 나라를 함께 할 뜻이 없음을 보이겠다.

- ① 문물제도의 정비를 반영한 「탁지지」 등을 편찬하였다.
- ② 초계문신제를 신설하여 인재 재교육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③ 통공 정책을 실시하여 자유로운 상업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④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키고 「동국문헌비고」 등을 편찬하여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해설 ▶ 제시된 사료는 영조의 '탕평교서'이다. ①②③-정조, ④-신문고 부활과 「동국문헌비고」 편찬은 영조 때의 사실이다.

15 다음 내용은 1894년 동학 농민 운동과 관련된 사실들이다. ㉠과 ㉡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데 이어 선전 포고도 없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은 잘 훈련된 일본군과 그들의 최신 병기 앞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낸 채 끝내 패하고 말았다.

- ①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 선발대가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에 패하였다.
- ② 손병희의 북접 농민군과 전봉준의 남접 농민군이 충청도 논산에서 합류하였다.
- ③ 농민군은 청 일 양군에 대한 철병 요구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관군과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하였다.
- ④ 농민군은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김개남 손화중을 총관령으로, 김덕명과 오시영을 총참모로 정하는 등 지휘 체계와 조직을 세우고 백산에 '호남창의대장소'를 설치하였다.

해설 ▶ ㉠-3기 중 청일전쟁 발발[1894년 6월 23일], ㉡-4기 중 공주 우금치 전투[1894년 11월 8일~12일]이다.
 ①-2기[1894.4.23.], ②-4기[1894.10.9.], ③-3기[1894.5.8.], ④-2기[1894.3.27.]

16 다음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인후에 처해 있는 지리적 위치는 유럽의 벨기에와 같고, 중국에 조공하던 처지는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그런데 불가리아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 여러 대국들이 러시아를 막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고, 벨기에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자국을 보전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전하는 정략도 될 것이다. 오직 중립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인데, 우리 스스로가 제창할 수도 없으니 중국에 청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맹주가 되어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같은 아시아에 관계 있는 여러 나라들과 화합하고 우리나라를 참석시켜 같이 중립 조약을 체결토록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계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 ① 1881년에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1884년에 우정총국이 설립되자 우정국 총판에 임명되었다.
- ② 1882년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왔고, 일제강점기에는 일제로부터 후작을 받고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 ③ 갑신정변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하였고, 1894년에 귀국하여 제2차 김홍집 내각의 법무대신이 되었다.
- ④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당시 군국기무처의 회원으로 참여하였고, 후에 국어 문법서인 「조선문전」을 저술하였다.

해설 ▶ 제시된 자료는 거문도 사건[1885~1887] 시기 유길준의 <중립국론>이다. ④-유길준, ①-홍영식, ②-박영효, ③-서재필이다.

17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라는 구분신참의 원칙을 내세워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②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실 주도의 개혁 사업을 추진하였다.
- ③ 재정 확보를 위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문서인 지계를 발

행하였다.

- ④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 제도의 근대화를 꾀하였으며,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교육 개혁을 추진하였다.

해설 → ①②③은 모두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이고, ④는 갑오2차개혁의 내용이다.

18 다음 중 1904년 2월에 체결된 한 일 의정서 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② 대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부에 용병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 ③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해설 → 한일의정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한일의정서(1904.2.23.)〉

제1조 한 · 일 양 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할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 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 · 강녕(康寧)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 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해 대한 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하며,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을 것

제5조 대한 제국 정부와 대일본 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않고 훗날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을 제3국 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된 미비한 세조(細條)는 대한 제국 외부대신과 대일본 제국 대표자 사이에 임기 협정할 것

- ①-한일신협약[=정미7조약(197.7.24)],
- ②-제1차한일협약[1904.8.22.],
- ③-한일의정서[1904.2.23.],
- ④-을사늑약[1905.11.17.]

